

우리 첫 학교들 방문으로 캘리포니아 100 주년 기념 시작



100 년 전인 1924 년, 로스 엔젤레스 지역에서 선교 사도직을 시작하기 위해 오하이오에서 11 명의 노틀담 수녀들이 캘리포니아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게 여겨집니다.

SND 캘리포니아 100 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수녀들은 이 첫 선교사들이 가르쳤던 각 본당에서 감사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 학교들은 헌팅턴 파크의 성 마티아스 학교와 와츠, 브린디시의 성 로렌스 학교입니다.

지난 100 간 수녀들은 22 개의 학교에서 봉사했고 샌프란치스코부터 롱비치까지 사목, 사회, 보건 분야에 몸담았습니다.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좋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기, 하느님 모상으로서의 개개인의 인간 존엄성, 복음의 증거자로서 노틀담 교육자, 변화를 위한 통합된 교육이라는 네 가지 SND 교육 원칙을 세웠습니다.

노틀담 전통에서 우리는 언제나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장려했으며 가톨릭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부모들과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날, 44 명의 수녀들이 아직도 로스 엔젤레스 대교구 내에서 거주하며 학교, 본당, 대교구 중앙 사무소, 비영리 재단, 병원 사도직에서 소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